

1. 다음 <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갑’지역 택배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갑’지역 택배서비스 월평균 이용건수
(단위: 건)

구분		코로나19 발생 전	코로나19 발생 후
전체		6.2	9.7
성별	남성	6.8	10.3
	여성	5.7	9.2
연령대	10대 이하	4.2	6.4
	20대	5.4	9.5
	30대	7.2	11.4
	40대	7.4	11.7
	50대	6.2	9.4
	60대	6.1	9.0
	70대 이상	5.0	8.2
거주 형태	아파트	6.3	10.0
	주택	6.3	9.0
	오피스텔	5.7	9.7
	기타	4.4	6.4

<보고서>

‘갑’지역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코로나19 발생 전 월평균 이용건수는 6.2건이었으나 발생 후에는 9.7건으로 50 % 이상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발생 후 택배서비스 월평균 이용건수 증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발생 후 택배서비스 월평균 이용건수 증가율은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70대 이상이 다음으로 높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거주자의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발생 후 택배서비스 월평균 이용건수 증가율이 약 70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 거주자가 다음으로 높았다. 유통채널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온라인구매 비율이 61.0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마트배송, 홈쇼핑,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온라인구매 비율은 발생 전에 비해 3.3%p 증가하였다. 수령방법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대면 수령 비율과 비대면 수령 비율이 각각 50.2 %, 49.8 %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대면 수령 비율이 19.4 %로 감소하였고, 비대면 수령 비율은 80.6 %로 증가하였다.

<보 기>

ㄱ. ‘갑’지역 택배서비스 이용건수의 유통채널별 비율
(단위: %)

구분\유통채널	온라인구매	홈쇼핑	마트배송	기타	합계
코로나19 발생 전	61.0	12.9	15.1	11.0	100.0
코로나19 발생 후	64.3	12.5	16.0	7.2	100.0

ㄴ. ‘갑’지역 택배서비스 이용건수의 수령방법별 비율
(단위: %)

구분\수령방법	대면	비대면	합계
코로나19 발생 전	50.2	49.8	100.0
코로나19 발생 후	19.4	80.6	100.0

ㄷ. ‘갑’지역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별 월평균 이용건수
(단위: 건)

구분\거주지	도시	농촌	기타
코로나19 발생 전	6.7	5.8	5.9
코로나19 발생 후	11.2	8.4	8.5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 다음 <표>는 2023년 A ~ D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구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 ~ D 중 ‘갑’ ~ ‘정’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1> 2023년 A ~ D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톤 CO₂eq.)

구분\국가	A	B	C	D
교통	9.7	5.0	4.0	2.5
주거용 빌딩	14.0	4.5	()	2.0
상업용 빌딩	17.0	4.5	3.5	2.8
기타	11.0	50.0	6.3	3.5
총배출량	()	64.0	17.3	()

<표 2> 2023년 A ~ D국의 인구
(단위: 백만 명)

국가	A	B	C	D
인구	9.7	2.9	2.4	1.5

※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톤 CO₂eq./명) = $\frac{\text{온실가스 총배출량}}{\text{인구}}$

<조 건>

- ‘갑’국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50백만 톤 CO₂eq. 이상이고,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가장 적다.
- ‘을’국과 ‘병’국 간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차이는 1.0톤 CO₂eq./명 이하이다.
-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주거용 빌딩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병’국이 ‘정’국보다 높다.
- 주거용 빌딩과 상업용 빌딩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은 ‘을’국이 가장 적다.

- | | | | |
|-----|---|---|---|
| A | B | C | D |
| ① 갑 | 병 | 정 | 을 |
| ② 갑 | 정 | 을 | 병 |
| ③ 갑 | 정 | 병 | 을 |
| ④ 정 | 갑 | 을 | 병 |
| ⑤ 정 | 갑 | 병 | 을 |

3. 다음 <보고서>는 2021 ~ 2023년 ‘갑’국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수 추이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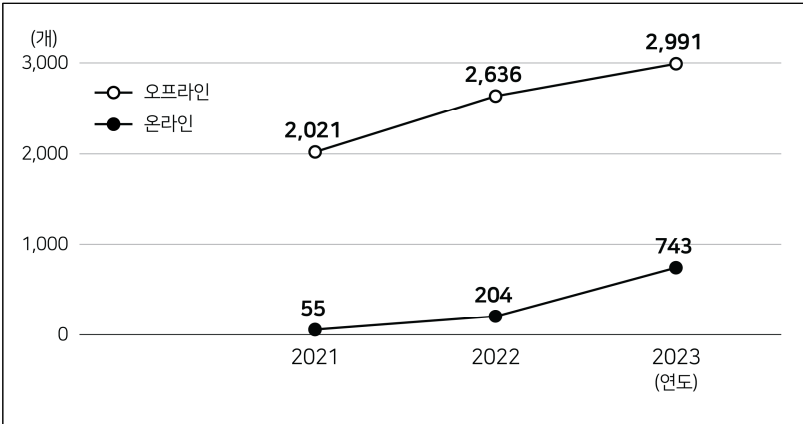
— <보고서> —

2021 ~ 2023년 ‘갑’국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각각 개설 과목 수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개설 과목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보다 매년 높았다.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교 규모별로 보면 각 규모의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 수가 매년 증가하였고, 대규모 학교의 개설 과목 수가 해당연도 전체 개설 과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각 지역의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 수가 매년 증가하였다. 또한, 대도시에서 개설된 과목 수가 해당연도 전체 개설 과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등학교 중 대규모이거나 대도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수가 많고,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 수 역시 다른 규모나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교 규모별로 보면 각 규모의 학교에서 연도별로 개설 과목의 수가 증가하였고, 대규모 학교의 개설 과목 수가 해당연도 전체 개설 과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개설된 과목 수가 해당연도 전체 개설 과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이후 중소도시가 매년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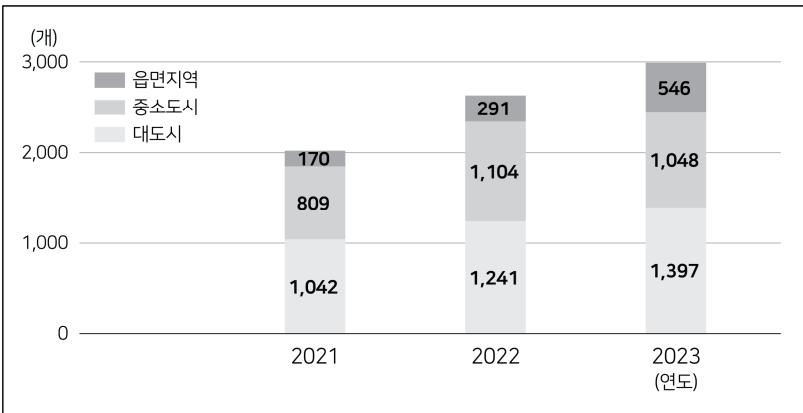
① 오프라인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연도별 개설 과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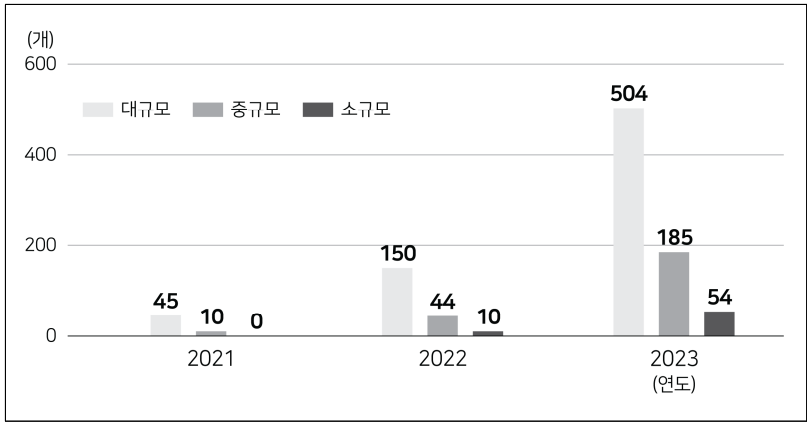
②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학교 규모별 개설 과목 수 (단위: 개)

학교 규모 \ 연도	2021	2022	2023
대규모	1,547	1,904	2,056
중규모	431	674	827
소규모	43	58	108
전체	2,021	2,636	2,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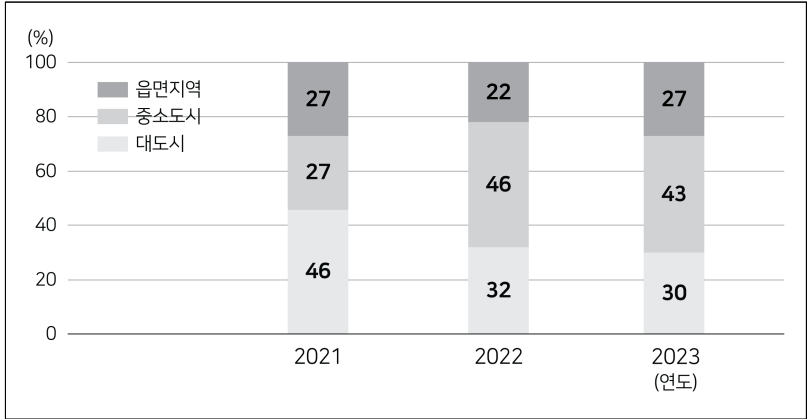
③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지역별 개설 과목 수



④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학교 규모별 개설 과목 수



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수의 지역별 구성비



4. 다음 <표>는 소음 환경에 따른 A ~ E 집단의 주의력 및 공간지각력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A ~ E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을 고르면?

<표> 소음 환경에 따른 주의력 및 공간지각력 점수 (단위: 점)

집단	구분 성별	저소음 환경				고소음 환경			
		주의력		공간지각력		주의력		공간지각력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A		7.2	6.9	8.0	6.6	3.6	3.3	4.1	3.0
B		6.8	7.3	6.5	8.1	2.5	3.0	3.1	3.6
C		8.3	7.9	7.8	7.6	4.4	4.1	3.5	3.4
D		6.5	6.8	6.7	6.5	3.2	3.5	3.2	3.3
E		7.7	8.0	7.9	7.9	3.7	4.0	3.9	3.6

— <조 건> —

- 저소음 환경과 고소음 환경에서의 주의력 점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다.
- 고소음 환경에서, 주의력 점수가 더 높은 성별이 공간지각력 점수도 더 높다.
- 남성과 여성 모두 저소음 환경에서의 주의력 점수가 고소음 환경에서의 주의력 점수의 2배 이상이다.
- 저소음 환경에서, 남성은 공간지각력 점수가 주의력 점수보다 높고 여성은 주의력 점수가 공간지각력 점수보다 높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5. 다음 <표>는 2021 ~ 2023년 ‘갑’국 A ~ F 제조사별 비스킷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1 ~ 2023년 제조사별 비스킷 매출액
(단위: 백만 원)

연도 제조사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A	127,540	128,435	132,634	128,913	128,048
B	138,313	132,807	131,728	120,954	119,370
C	129,583	124,145	132,160	126,701	116,864
D	83,774	84,170	85,303	85,266	79,024
E	20,937	28,876	24,699	24,393	21,786
F	95,392	89,461	90,937	107,322	112,410
전체	595,539	587,894	597,461	593,549	577,502

<표 2> 2023년 상반기 유통채널별 비스킷 매출액
(단위: 백만 원)

유통채널 제조사	백화점	할인점	체인슈퍼	편의점	독립슈퍼	일반 식품점
A	346	28,314	23,884	26,286	33,363	15,855
B	253	24,106	24,192	21,790	30,945	18,084
C	228	30,407	22,735	21,942	25,126	16,426
D	307	22,534	17,482	9,479	19,260	9,962
E	45	5,462	2,805	8,904	2,990	1,580
F	2,494	39,493	13,958	33,298	14,782	8,385
전체	3,673	150,316	105,056	121,699	126,466	70,292

- ※ 1) ‘갑’국의 비스킷 제조사는 A ~ F만 있음.
2) ‘갑’국의 비스킷 유통채널은 제시된 6개로만 구분됨.

<보 기>

- ㄱ. 2021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 중 제조사별 매출액 비중이 20 % 이상인 제조사의 수는 3개이다.
ㄴ. 2022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가장 큰 제조사는 E이다.
ㄷ.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제조사의 수는 2022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가 동일하다.
ㄹ. 2023년 상반기의 경우, 각 제조사의 백화점, 할인점, 체인슈퍼 매출액의 합은 해당 제조사 매출액의 50 % 미만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6. 다음 <표>는 2012 ~ 2021년 우리나라 D 부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2 ~ 2021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및 처리건수
(단위: 건)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건수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타기관 이송	취하	민원 이첩	기타
2012	1,046	446	149	161	44	79	60	107
2013	1,231	550	156	137	46	150	66	126
2014	1,419	572	176	149	77	203	35	207
2015	1,493	522	183	198	104	152	88	246
2016	1,785	529	184	215	207	134	222	294
2017	3,097	837	293	334	511	251	0	871
2018	2,951	1,004	333	386	379	232	0	617
2019	3,484	1,296	411	440	161	250	0	926
2020	4,006	1,497	660	502	170	327	0	850
2021	5,708	2,355	950	656	188	653	0	906

※ 정보공개 청구건은 해당연도에 모두 처리됨.

<표 2> 2012 ~ 2021년 청구방법별 정보공개 청구건수
(단위: 건)

청구방법 연도	직접출석	우편	팩스	정보 통신망	기타
2012	47	24	5	968	2
2013	49	46	7	1,124	5
2014	111	54	13	1,241	0
2015	82	68	16	1,324	3
2016	51	55	9	1,669	1
2017	87	80	7	2,918	5
2018	162	75	27	2,687	0
2019	118	86	11	3,269	0
2020	134	94	13	3,758	7
2021	130	65	17	5,495	1

<보 기>

- ㄱ.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매년 증가한다.
ㄴ. ‘타기관이송’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해와 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전부공개’ 처리건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해는 같다.
ㄷ. 연도별 ‘비공개’ 처리건수와 ‘취하’ 처리건수의 합은 해당연도 정보공개 청구건수의 20 %를 매년 초과한다.
ㄹ. 2021년 ‘전부공개’ 처리건수 중 청구방법이 ‘정보통신망’인 처리건수는 2,100건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표>는 2019 ~ 2023년 ‘갑’지역의 여행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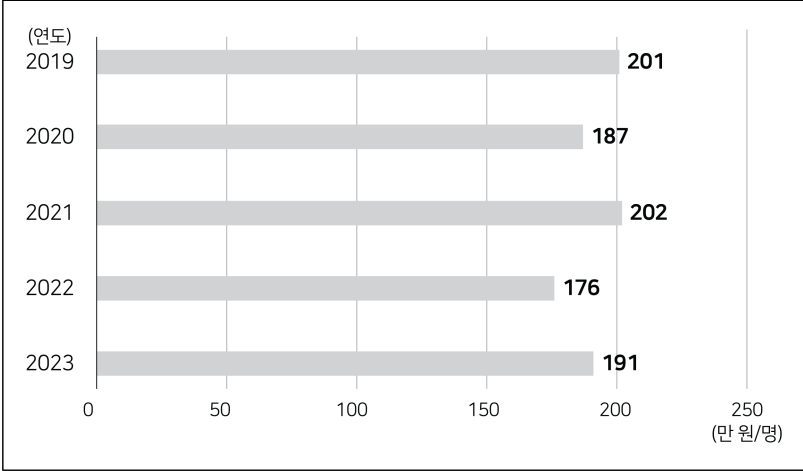
<표 1> 여행 목적별 여행객 수 (단위: 명)

목적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분						
전체	총계		9,315	10,020	10,397	10,811	10,147
	개별여행		6,352	6,739	7,410	7,458	7,175
	단체여행		2,963	3,281	2,987	3,353	2,972
여가	소계		4,594	5,410	6,472	6,731	6,526
	개별여행		2,089	2,749	3,931	3,865	4,085
	단체여행		2,505	2,661	2,541	2,866	2,441
종교	소계		125	114	104	80	50
	개별여행		99	64	58	56	31
	단체여행		26	50	46	24	19
쇼핑	소계		981	1,044	1,030	1,148	1,328
	개별여행		683	701	748	776	919
	단체여행		298	343	282	372	409
사업	소계		2,880	2,746	2,366	2,389	1,768
	개별여행		2,774	2,585	2,284	2,317	1,682
	단체여행		106	161	82	72	86
교육	소계		735	706	425	463	475
	개별여행		707	640	389	444	458
	단체여행		28	66	36	19	17

<표 2> 여행지출액 및 여행횟수별 여행객 수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구분	여행지출액	여행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2019		18,760	5,426	1,449	792	1,648
2020		18,710	6,046	1,395	802	1,777
2021		20,953	6,773	1,341	686	1,597
2022		19,060	5,834	1,759	851	2,367
2023		19,392	6,237	1,268	677	1,965

① 여행객 1명당 여행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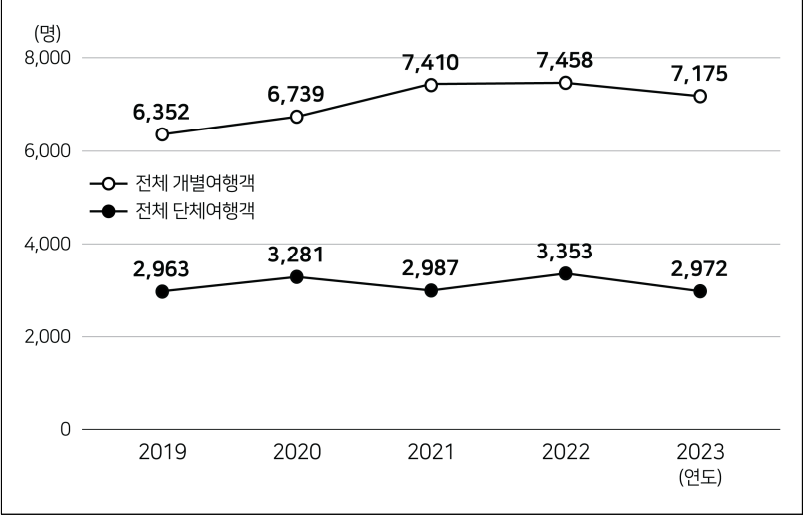
※ 여행객 1명당 여행지출액(만 원/명) = $\frac{\text{여행지출액}}{\text{전체 여행객 총계}}$

② 전체 개별여행객 중 ‘사업’ 목적 개별여행객 비율 및 전체 단체여행객 중 ‘사업’ 목적 단체여행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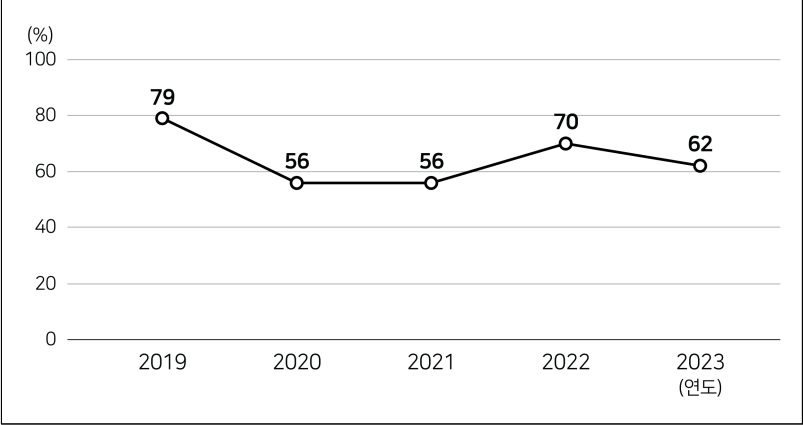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개별여행		44	38	31	31	23
단체여행		4	5	3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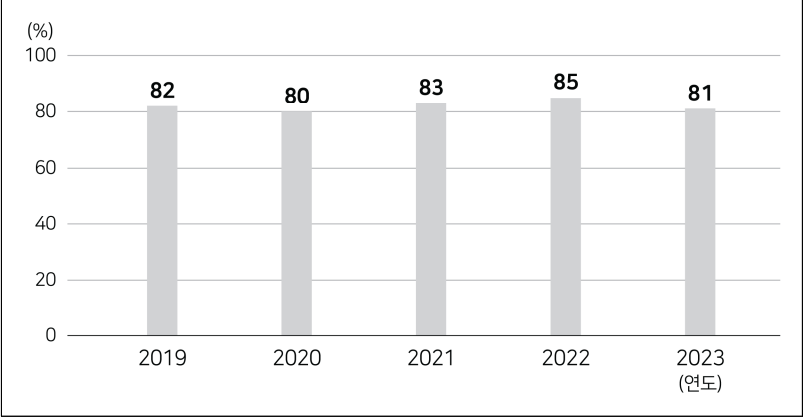
③ 전체 개별여행객 수 및 전체 단체여행객 수



④ ‘종교’ 목적 여행객 중 개별여행객 비율



⑤ 전체 여행객 중 여행횟수가 3회 이하인 여행객 비율



8. 다음 <표>는 ‘갑’국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종사상지위\시기	2022년 7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상용근로자	16,403	16,680	16,675
임시일용근로자	1,892	2,000	2,020
기타종사자	1,185	1,195	1,187

<보고서>

‘갑’국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종사자 및 입·이직자 현황을 파악하였다. 2023년 7월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2천 명 증가하였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8천 명 증가하였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7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3만 3천 명 증가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9천 명 증가하였다. 한편, 2023년 7월 입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 명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5만 8천 명 증가하였다. 2023년 7월 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4.0 %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약 7.0 % 증가하였다. 또한, 2023년 7월 전체 입직자 중 채용을 통한 입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 명 증가하였으며, 기타 입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천 명 증가하였다.

<보 기>

ㄱ.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사업체 규모\시기	2022년 7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300인 미만	16,216	16,555	16,549
300인 이상	3,264	3,320	3,333

ㄴ. 주요산업별 종사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주요산업\시기	2022년 7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제조업	3,696	3,740	3,737
건설업	1,452	1,463	1,471
도매 및 소매업	2,274	2,308	2,301

ㄷ. 입직자 및 이직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구분\시기	2022년 7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입직자	1,001	969	1,027
이직자	973	946	1,012

ㄹ. 입직유형별 입직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입직유형\시기	2022년 7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채용	892	925	917
기타	109	44	110
합계	1,001	969	1,027

- ① ㄱ, ㄷ
③ ㄴ, ㄹ
⑤ ㄱ, ㄷ, ㄹ

- ② ㄴ, ㄷ
④ ㄱ, ㄴ, ㄹ

9. 다음 <표>는 2022년 ‘갑’모터쇼에 전시된 전기차 A ~ E의 차량가격 및 제원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전기차 A ~ E의 차량가격 및 제원 (단위: 만 원, 분, km, kWh)

전기차\구분	차량가격	완충시간	완충시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A	8,469	350	528	75.0
B	5,020	392	475	77.4
C	17,700	420	478	112.8
D	14,620	420	447	111.5
E	6,000	252	524	77.4

<보 기>

- ㄱ. ‘배터리 용량’당 ‘차량가격’은 C가 가장 높다.
ㄴ. ‘차량가격’이 가장 낮은 전기차는 ‘완충시간’ 대비 ‘배터리 용량’의 비율도 가장 낮다.
ㄷ. ‘완충시 주행거리’ 대비 ‘완충시간’의 비율은 D가 E의 2배 이상이다.
ㄹ. ‘차량가격’이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도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표>는 ‘갑’국 공공기관 A ~ C의 경영실적 및 평가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공공기관 A ~ C의 경영실적 및 평가점수 (단위: 백만 원, 점)

구분\공공기관	A	B	C
매출액	()	4,000	()
영업이익	400	()	()
평균총자산	2,000	()	6,000
자산회전지표	0.50	0.80	()
영업이익지표	()	0.15	0.50
평가점수	()	()	1.50

- ※ 1) 자산회전지표 = $\frac{\text{매출액}}{\text{평균총자산}}$
2) 영업이익지표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3) 평가점수(점) = (자산회전지표 × 1점) + (영업이익지표 × 2점)

<보 기>

- ㄱ. 매출액은 A가 가장 크다.
ㄴ. 영업이익은 C가 A의 4배 이상이다.
ㄷ. 평가점수는 B가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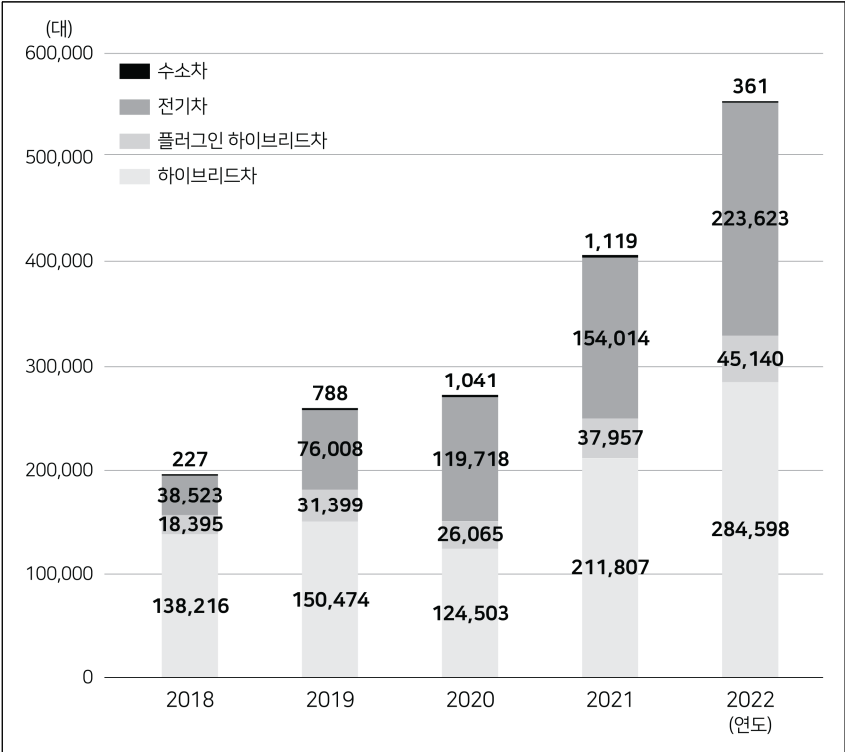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1. 다음 <표>와 <그림>은 2018 ~ 2022년 우리나라 친환경차 유형별 등록대수 및 수출대수와 2019년 친환경차 수출액 상위 10개 수출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8 ~ 2022년 우리나라 친환경차 유형별 등록대수
(단위: 대)

유형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하이브리드차	399,464	497,297	652,876	888,481	1,157,94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5,620	8,350	21,585	19,759	12,567
전기차	55,756	89,918	134,962	231,443	389,855
수소차	893	5,083	10,906	19,404	29,623
전체	461,733	600,648	820,329	1,159,087	1,589,985

<그림> 2018 ~ 2022년 우리나라 친환경차 유형별 수출대수



※ 친환경차 유형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로만 구분됨.

<표 2> 2019년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의 수출액 상위 10개 수출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1	일본	16,311	독일	4,818	미국	7,648
2	독일	6,172	일본	2,588	벨기에	5,018
3	벨기에	3,674	스웨덴	1,762	독일	3,913
4	터키	3,125	미국	1,008	한국	2,354
5	영국	2,762	한국	939	오스트리아	1,220
6	한국	2,691	영국	839	프랑스	1,166
7	슬로바키아	1,876	중국	523	영국	1,097
8	캐나다	1,845	슬로바키아	502	네덜란드	902
9	프랑스	1,227	스페인	271	중국	438
10	스웨덴	828	벨기에	199	일본	431

<보고서>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연비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우리나라 친환경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정책으로 급성장하여 ① 2018 ~ 2022년 전체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매년 30 % 이상 증가하였다. 친환경차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2년에 등록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친환경차 유형은 ‘하이브리드차’였으나, ② 2018년 대비 2022년 등록대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친환경차 유형은 ‘수소차’였다. ③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2018년 195,361대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553,722대가 되었다. ④ 2018 ~ 2022년 친환경차 유형별 수출대수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매년 증가하였다.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2019년 수출액 기준 ‘하이브리드차’ 6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5위, ‘전기차’ 4위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2019년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각각의 수출액 상위 10개 수출국에 모두 들어가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5개국이었다.

12. 다음 <표>는 2023년 ‘갑’기업 전체 임원(A ~ J)의 보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갑’기업 전체 임원의 보수 현황
(단위: 십만 원)

임원	사업부	등기여부	보수총액	급여	상여
A	가	미등기	7,187	2,700	4,487
B	나	등기	6,497	2,408	()
C	다	등기	4,068	()	2,000
D	라	미등기	()	1,130	2,598
E	마	등기	3,609	1,933	1,676
F	마	등기	3,069	1,643	1,426
G	나	미등기	3,050	1,633	1,417
H	바	미등기	3,036	1,626	1,410
I	사	등기	3,000	2,000	1,000
J	다	미등기	2,990	2,176	814
합계	—	—	40,234	19,317	20,917

※ 보수총액 = 급여 + 상여

- ① 보수총액이 많은 임원일수록 상여도 많다.
- ② ‘마’사업부 임원의 보수총액 합에서 급여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 미만이다.
- ③ 임원 1인당 보수총액이 가장 적은 사업부는 임원 1인당 급여도 가장 적다.
- ④ 보수총액에서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임원은 B이다.
- ⑤ 미등기 임원의 급여 합은 등기 임원의 급여 합보다 많다.

13. 다음 <표>는 1995 ~ 2020년 ‘갑’지역의 농가구조 변화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갑’지역의 가구원수별 농가수 추이
(단위: 가구)

조사연도 가구원수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인	13,262	15,565	18,946	18,446	17,916	20,609
2인	43,584	52,394	56,264	57,023	52,023	53,714
3인	33,776	27,911	24,078	19,666	17,971	13,176
4인	33,047	23,292	17,556	13,122	11,224	7,176
5인 이상	64,491	33,095	20,573	13,492	10,299	5,687
전체	188,160	152,257	137,417	121,749	109,433	100,362
농가당 가구원수(명)	3.8	3.2	2.8	2.6	2.5	2.3

<표 2> ‘갑’지역의 경영주 연령대별 농가수 추이
(단위: 가구)

조사연도 연령대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30대 이하	23,891	12,445	8,064	3,785	3,120	1,567
40대	39,308	26,471	20,851	15,750	12,131	7,796
50대	61,989	44,919	34,927	28,487	24,494	21,126
60대	46,522	48,747	49,496	42,188	34,296	30,807
70대 이상	16,450	19,675	24,079	31,539	35,392	39,066
전체	188,160	152,257	137,417	121,749	109,433	100,362

- ① ‘5인 이상’을 제외하고, 1995년 대비 2020년 가구원수별 농가수 증감률은 ‘2인’이 가장 작다.
- ② 매 조사연도에서 ‘3인’ 농가수는 그 외 농가수 합의 25 % 이하이다.
- ③ 2000년 전체 농가 가구원수는 2020년 전체 농가 가구원수의 2배 이상이다.
- ④ 2020년 전체 농가수 중 경영주 연령대가 40대 이하인 농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 이하이다.
- ⑤ 경영주 연령대가 30대 이하인 농가수는 1995년 대비 2020년에 95 % 이상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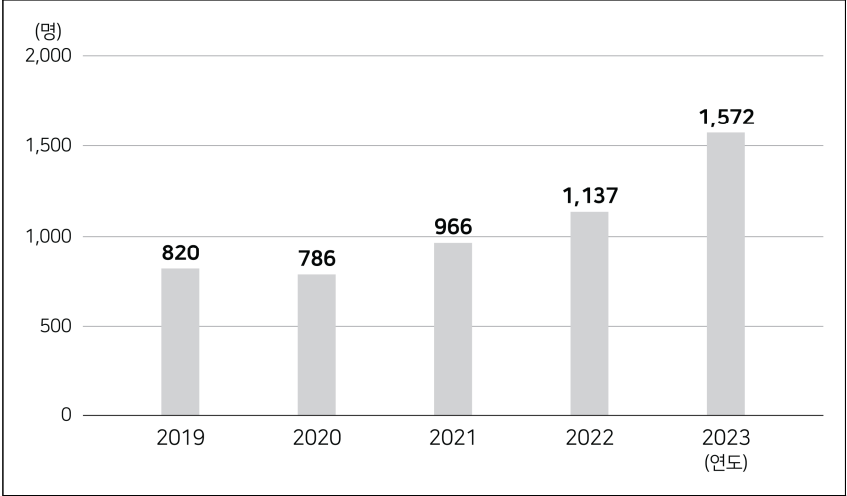
14. 다음 <표>와 <그림>은 A 미술전 응모 및 수상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3년 A 미술전 응모 및 수상 결과
(단위: 개, 명)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응모	268	502	232	446	306	624
수상	56	88	30	59	43	68

※ A 미술전의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만 구성됨.

<그림> 연도별 A 미술전 응모인원



<보 기>

- ㄱ. 2023년 응모인원 대비 수상인원이 가장 많은 부문은 초등부이다.
- ㄴ. 2023년 팀별 인원이 1 ~ 3명이라면, 3명으로 구성된 초등부 수상팀은 15개 이하이다.
- ㄷ. 2020년 응모인원의 부문별 구성비가 2023년과 동일하다면, 2020년 중등부 응모인원은 200명 이상이다.
- ㄹ. 2024년부터 매년 응모인원이 전년 대비 30 %씩 증가한다면, 응모인원이 2019년의 3배를 처음 초과하는 해는 2026년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15. 다음 <표>는 ‘갑’국의 빈집 철거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기준이고, <그림>은 ‘갑’국의 ‘가’ ~ ‘자’ 구역 및 빈집의 정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빈집 철거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기준

항목			철거	활용
구역 종류	공가기간	건축물 연령		
일반구역	20년 이하	건축구조의 사용연한 이하	불가능	가능
		건축구조의 사용연한 초과	가능	불가능
	20년 초과	—	가능	불가능
정비구역	—	—	불가능	불가능

- ※ 1) 공가기간: 빈집이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2) 건축물 연령: 건축물의 완공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3) ‘—’는 해당 항목을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2> 건축구조별 사용연한

건축구조	사용연한
목구조	20년
조적조	30년
철골구조	40년

<그림> ‘가’ ~ ‘자’ 구역 및 빈집의 정보

구역 위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구역 종류

정비구역 일반구역

공가기간(년)

3	14	6
14	3	11
21	8	6

건축물 연령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년 이하

건축구조

목구조 조적조 철골구조

※ 각 구역에는 빈집이 1개씩만 존재함.

- ① 철거가 가능한 빈집은 3개이다.
② ‘가’, ‘바’, ‘사’ 구역의 빈집은 철거가 가능하다.
③ ‘다’ 구역의 빈집은 활용이 불가능하다.
④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4개이다.
⑤ ‘마’ 구역의 빈집은 철거가 가능하다.

16. 다음 <표>와 <정보>는 ‘갑’회사의 승진후보자별 2021 ~ 2023년 근무성적점수 및 승진대상자 선정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승진후보자별 2021 ~ 2023년 근무성적점수 (단위: 점)

승진후보자	2023	2022	2021
정숙	85	65	65
윤호	70	85	75
찬희	75	75	65
상용	80	60	65

<표 2> 평가방법별 2021 ~ 2023년 가중치

평가방법	2023	2022	2021
A	0.5	0.3	0.2
B	0.6	0.4	0.0
C	1.0	0.0	0.0

※ 평가방법별 가중치 합은 1.0임.

<정 보>
○ 평정점수는 2021 ~ 2023년 근무성적점수에 해당연도의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임.
○ 평정점수가 가장 높은 승진후보자만 승진대상자로 선정함.

<보 기>
ㄱ. 모든 승진후보자의 평정점수는 평가방법 A를 적용할 때보다 평가방법 B를 적용할 때가 더 높다.
ㄴ. 평가방법 A를 적용할 때와 평가방법 C를 적용할 때의 승진대상자는 같다.
ㄷ. ‘상용’의 2023년 근무성적점수만 90점으로 변경된다면, 평가방법 A ~ C 중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상용’이 승진대상자가 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7. 다음 <표>는 2021 ~ 2023년 ‘갑’국 공무원의 교육방법별 교육시간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하여 A ~ C에 해당하는 교육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1 ~ 2023년 ‘갑’국 공무원의 교육방법별 교육시간
(단위: 시간)

교육방법 \ 연도	2021	2022	2023
A	671	1,106	557
B	3,822	2,614	2,394
C	717	204	191
D	392	489	559
사례연구	607	340	385
세미나	80	132	391
역할연기	864	713	97
전체	7,153	5,598	4,574

※ 교육방법은 ‘강의’, ‘분임토의’, ‘사례연구’, ‘세미나’, ‘실습’, ‘역할연기’, ‘현장체험’ 중 1개로만 구분됨.

<정 보>

- 매년 교육시간이 감소하는 교육방법은 ‘강의’, ‘실습’, ‘역할연기’이다.
- 2023년 전체 교육시간 중 교육방법별 교육시간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한 교육방법은 ‘분임토의’와 ‘역할연기’이다.
- 2023년 교육시간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세 번째로 큰 교육방법은 ‘실습’이다.

- | | | | |
|---|------|----|------|
| | A | B | C |
| ① | 강의 | 실습 | 현장체험 |
| ② | 분임토의 | 강의 | 실습 |
| ③ | 분임토의 | 실습 | 강의 |
| ④ | 실습 | 강의 | 현장체험 |
| ⑤ | 현장체험 | 강의 | 실습 |

18. 다음 <표>는 2022년 ‘갑’국 A 전력회사의 월별 및 용도별 전력판매 단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2년 A 전력회사의 월별 및 용도별 전력판매 단가
(단위: 원/kWh)

용도 \ 월	주택	일반	교육	산업	농사	가로등	심야
1	119.1	134.2	97.9	113.8	48.2	108.1	75.3
2	118.9	131.7	101.4	115.5	48.1	113.2	75.3
3	109.3	122.6	98.5	95.2	48.8	114.3	66.9
4	112.9	119.4	95.7	100.7	52.3	121.3	57.9
5	112.2	124.4	99.0	100.9	56.0	128.9	63.6
6	115.0	139.3	118.7	122.0	54.5	132.6	66.9
7	127.1	154.4	127.3	129.8	60.7	137.6	76.3
8	129.6	151.8	133.6	130.7	59.9	133.4	77.8
9	122.3	137.5	117.3	109.6	60.4	129.8	74.7
10	123.0	133.7	110.8	117.9	65.6	127.4	74.3
11	129.0	154.5	125.2	145.1	64.1	128.9	83.3
12	131.9	158.1	118.1	143.0	68.4	125.9	94.3

※ 전력판매 용도는 제시된 7가지로만 구분됨.

- ① 7 ~ 12월 전력판매 단가는 ‘농사’가 매월 가장 낮고, ‘일반’이 매월 가장 높다.
- ② 2월 ‘심야’ 전력판매 단가는 2월 ‘주택’ 전력판매 단가의 60% 이상이다.
- ③ 전력판매 단가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11월 ‘교육’이 4월 ‘가로등’의 2배 이상이다.
- ④ 전력판매 단가는 매월 ‘주택’이 ‘농사’의 1.5배 이상이다.
- ⑤ 7 ~ 12월 ‘교육’ 전력판매 단가와 ‘산업’ 전력판매 단가의 전월 대비 증감 방향은 동일하다.

19. 다음 <표>는 A ~ D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	자주 재원	세입 총계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A	5,188	1,240	9,966	()	()
B	2,792	()	10,080	27.70	69.67
C	1,444	3,371	6,754	21.38	()
D	2,176	4,143	9,696	22.44	65.17

- ※ 1) 재정자립도(%) = $\frac{\text{자체수입}}{\text{세입총계}} \times 100$
2) 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세입총계}} \times 100$
3) 세입총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기타

————— <보 기> —————
ㄱ. 재정자주도는 A가 C보다 높다.
ㄴ. 세입총계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A가 B보다 작다.
ㄷ. C는 D보다 재정자립도는 낮고 재정자주도는 높다.
ㄹ. 자주재원은 D가 가장 많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표>는 2023년 ‘갑’국 8개 도시(A ~ H)의 상수도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갑’국 A ~ H 도시의 상수도 통계
(단위: %)

도시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	계량기 불감수율	수도사업 용수량 비율
A	94.2	5.8	5.4	0.1	0.0
B	91.6	8.4	3.6	4.5	0.3
C	90.1	9.9	4.5	2.3	0.1
D	93.4	6.6	4.3	2.0	0.1
E	93.8	6.2	4.2	1.9	0.1
F	92.2	7.8	5.1	2.6	0.1
G	90.9	9.1	5.1	3.8	0.1
H	94.6	5.4	2.6	2.3	0.2

- ※ 1) 무수율 = 누수율 + 유효무수율
2) 유효무수율 = 계량기 불감수율 + 수도사업 용수량 비율 + 부정사용률

- ① 유효무수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누수율이 가장 높다.
② 유수율이 가장 낮은 도시의 부정사용률은 유수율이 세 번째로 높은 도시의 부정사용률보다 높다.
③ 무수율과 부정사용률의 차이가 가장 큰 도시는 G이다.
④ 계량기 불감수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유효무수율도 가장 높다.
⑤ 부정사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무수율도 가장 높다.

21. 다음 <표>는 2023년 ‘갑’국의 농산물 가공식품 품목별 수입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 ~ C에 해당하는 농산물 가공식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3년 ‘갑’국의 농산물 가공식품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톤, 원/kg, %)

품목	수입중량	수입단가	전년 대비 증가율
A	217	2,181	20.3
B	61	16,838	-16.1
C	2,634	1,174	24.1
D	43	1,479	-22.3
E	2,238	1,788	-37.0
김치	6,511	969	2.2
두부	86	3,848	8.4
밀가루	343	1,489	26.0

- ※ 1) A ~ E는 ‘간장’, ‘고춧가루’, ‘된장’, ‘설탕’, ‘식용유’ 중 하나임.
2) 수입금액(천 원) = 수입중량(톤) × 수입단가(원/kg)

————— <조 건> —————
○ 2023년 ‘간장’과 ‘고춧가루’의 수입중량 합은 ‘식용유’ 수입중량의 15 % 이하이다.
○ 2023년 수입금액이 가장 낮은 품목은 ‘된장’이다.
○ 2022년 수입단가가 2,000원/kg 이상인 품목은 ‘고춧가루’, ‘두부’, ‘식용유’이다.
○ 2023년 수입중량이 2,000톤 이상인 품목은 ‘김치’, ‘설탕’, ‘식용유’이다.

- | | | | |
|---|----------|----------|----------|
| | <u>A</u> | <u>B</u> | <u>C</u> |
| ① | 간장 | 고춧가루 | 설탕 |
| ② | 간장 | 고춧가루 | 식용유 |
| ③ | 간장 | 설탕 | 식용유 |
| ④ | 고춧가루 | 간장 | 식용유 |
| ⑤ | 된장 | 고춧가루 | 설탕 |

[22 ~ 23] 다음은 2022년 ‘갑’시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 실태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양육자의 성별 및 연령대별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 %)

구분		양육 스트레스 점수	고위험군 비율
성별	여성	37.3	62.3
	남성	33.6	46.5
연령대	20대 이하	38.1	56.0
	30대	36.0	53.3
	40대	34.3	54.2
	50대 이상	35.1	51.8

<표 2> 양육자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발생 비율
(단위: %)

구분		유형	A	B	C	D
성별	여성		28.5	21.5	23.6	12.3
	남성		22.8	14.5	17.1	8.7
육아 참여 방식	육아 미참여		34.0	24.5	24.4	13.7
	양육자 혼자 육아 참여		33.3	22.2	24.0	15.3
	배우자와 함께 육아 참여		19.2	13.5	16.9	7.1
양육 스트레스 위험 수준	저위험군		9.6	4.2	8.1	3.1
	고위험군		39.0	29.3	30.3	16.5

<보고서>

2022년 ‘갑’시에 거주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 실태를 조사하였다. 양육자의 성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남성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육자 연령대별로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가 양육 스트레스 점수와 고위험군 비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 자녀 연령별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0 ~ 2세가 가장 높고, 3 ~ 6세, 7 ~ 9세 순이었다. 고위험군 비율 순위 역시 자녀의 연령별 양육 스트레스 점수 순위와 같았다.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 구간이 200만 원 미만인 양육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위험군 비율도 다른 소득 구간보다 25%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갑’시에 거주하는 양육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자 성별이나 육아 참여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문제 유형 중 ‘섭식문제’의 발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양육자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발생 비율 차이는 ‘불면증’이 ‘우울’보다 컸다. 육아 참여 방식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함께 육아 참여’일 때, 모든 유형에서 정신건강 문제 발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일례로 ‘우울’ 발생 비율은 ‘배우자와 함께 육아 참여’일 때가 ‘양육자 혼자 육아 참여’일 때보다 14.1%p 낮게 나타났다. 한편, 양육 스트레스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 발생 비율이 높았는데, 그중 ‘불안’과 ‘섭식문제’의 발생 비율은 각각 고위험군이 저위험군의 5배 이상이었다.

22. 위 <표>와 <보고서>를 근거로 B와 C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문제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B

C
- ① 불면증

불안
- ② 불면증

우울
- ③ 불안

불면증
- ④ 불안

우울
- ⑤ 우울

불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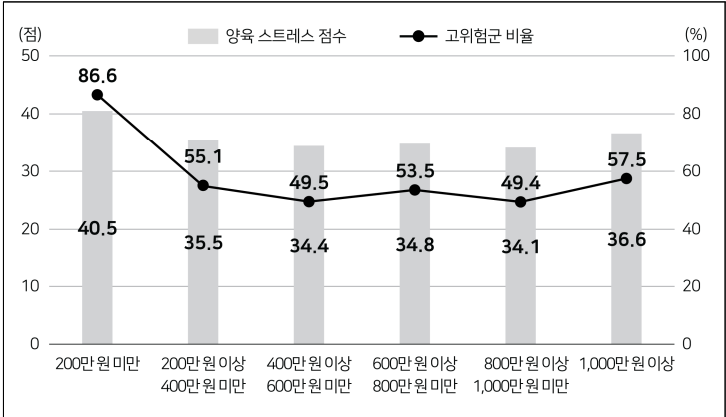
23.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2022년 ‘갑’시 양육자의 자녀 연령별 양육 스트레스

구분	자녀 연령	0 ~ 2세	3 ~ 6세	7 ~ 9세
양육 스트레스 점수(점)		36.3	35.1	34.5
고위험군 비율(%)		58.3	52.4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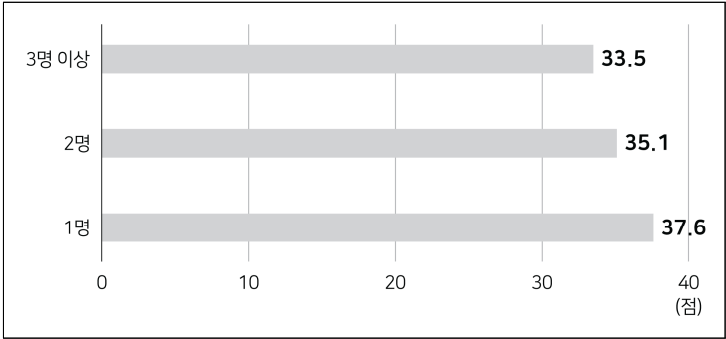
ㄴ. 2022년 ‘갑’시 양육자의 가구 월평균 소득 구간별 양육 스트레스



ㄷ. 2022년 ‘갑’시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별 양육 스트레스

구분	경제활동 여부	양육 스트레스 점수(점)	고위험군 비율(%)
경제활동 여부	양육자 모두 경제활동	34.9	53.1
	남성 양육자만 경제활동	35.4	53.4
	여성 양육자만 경제활동	36.4	54.9
	양육자 모두 비경제활동	46.0	100.0

ㄹ. 2022년 ‘갑’시 양육자의 자녀수별 양육 스트레스 점수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4. 다음 <보고서>는 2016 ~ 2022년 ‘갑’국의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의 자료 중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고서>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 체제란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계열사를 소속회사(자, 손자, 증손 회사)로 편입하여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의미한다.

‘갑’국의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2017년에 상향됨에 따라 2018년 이후 지주회사 수는 2017년 지주회사 수의 90 %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지주회사 수는 168개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편입률은 지주회사 전체 계열사 중 지주회사 체제 안에 편입되어 있는 계열사 비율을 나타내는데, 2018년 80 %를 초과하였고 2019년 이후 70 %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지주회사의 전체 계열사 1,281개 중 915개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입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지주회사의 평균 소속회사 수 추이를 보면, 자, 손자, 증손 회사 각각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전체 소속회사 수가 200개 이상 증가하였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2022년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지주회사 수는 2017년 대비 30 % 이상 감소한 반면, 5천억 원 이상인 지주회사 수는 30 %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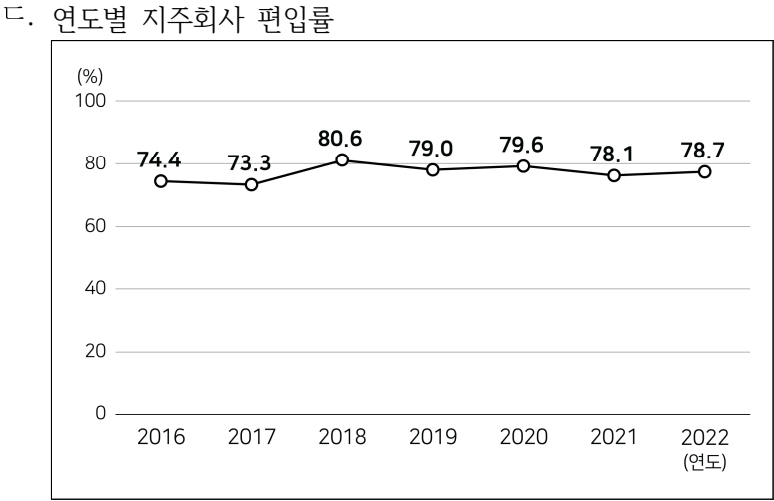
<보 기>

ㄱ. 연도별 지주회사 수

연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외 지주회사	합계
2016	20	142	162
2017	41	152	193
2018	37	136	173
2019	39	134	173
2020	43	124	167
2021	46	118	164
2022	48	120	168

ㄴ. 지주회사의 평균 소속회사 수 추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자	4.9	4.8	5.0	5.3	5.4	5.5	5.8
손자	5.0	4.8	5.2	5.6	5.9	6.2	6.9
증손	0.5	0.6	0.5	0.5	0.8	0.7	0.8
전체	10.4	10.2	10.7	11.4	12.1	12.4	13.5



ㄹ.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 (단위: 개)

자산규모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천억 원 미만	64	84	79	76	78	76	86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88	97	82	83	74	72	66
5천억 원 이상	10	12	12	14	15	16	16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ㄱ, ㄹ

④ ㄴ, ㄷ
- ⑤ ㄴ, ㄹ

25. 다음 <표>는 2023년 ‘갑’국 9개 콘텐츠 공모전의 상금총액 및 작품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갑’국 9개 콘텐츠 공모전의 상금총액 및 작품 현황 (단위: 만 원, 개)

공모전	구분	상금총액	응모작품 수	수상작품 수
청렴사회	평화통일	4,980	1,507	50
	평화통일	4,500	177	21
	평화정책	3,400	368	65
	문화 다양성	2,000	79	13
	문화체험 메타버스	1,200	97	10
	장애인 고용	1,100	134	14
	평등가족 실천	850	155	21
	적극행정 홍보	730	151	15
	문화재 재난안전	670	118	12
전체		19,430	2,786	221

※ 수상률(%) = $\frac{\text{수상작품 수}}{\text{응모작품 수}} \times 100$

- ① 수상작품 수가 50개 미만인 공모전은 상금총액이 많을수록 수상작품 수도 많다.

② 수상률이 가장 높은 공모전은 ‘문화 다양성’이다.
- ③ 공모전 전체 상금총액 중 ‘평화통일’ 상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 이상이다.

④ 상금총액 대비 응모작품 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공모전의 수상작품 수는 20개 이상이다.
- ⑤ 수상률 하위 2개 공모전의 상금총액 합은 6,000만 원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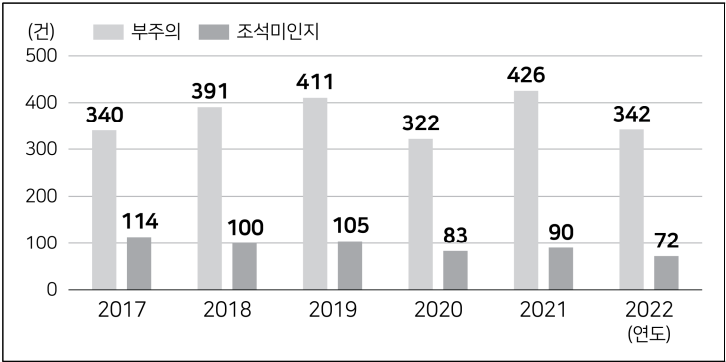
26. 다음 <표>는 2017 ~ 2022년 원인별 연안사고 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기>의 자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7 ~ 2022년 원인별 연안사고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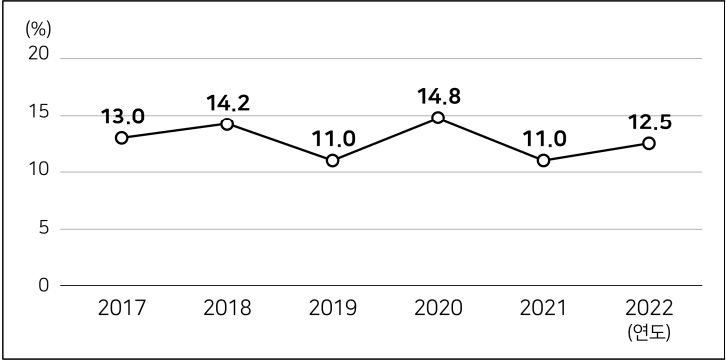
원인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상불량	20	32	25	14	18	20
부주의	340	391	411	322	426	342
수영미숙	35	39	25	11	21	19
안전미준수	44	46	28	20	13	6
음주	91	108	79	89	79	72
조석미인지	114	100	105	83	90	72
기타	54	43	48	63	70	44
전체	698	759	721	602	717	575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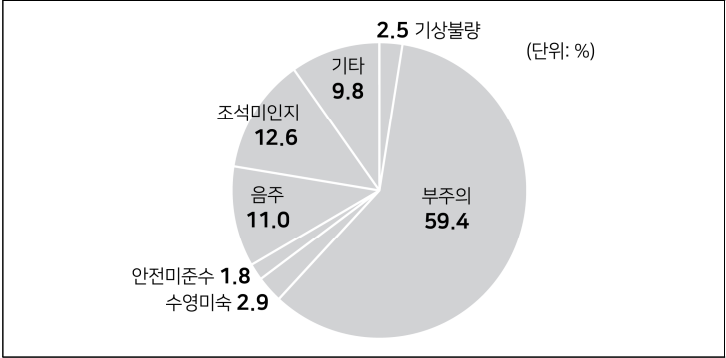
ㄱ. 연도별 부주의 및 조석미인지로 인한 연안사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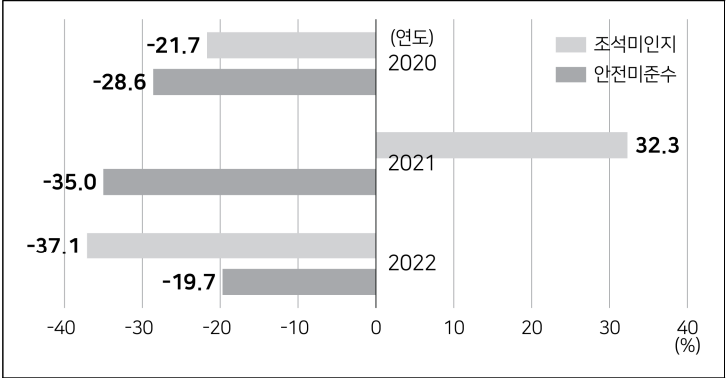
ㄴ. 연도별 전체 연안사고 건수 중 음주로 인한 연안사고 건수 비중



ㄷ. 2021년 연안사고 건수의 원인별 구성비



ㄹ. 2020 ~ 2022년 조석미인지 및 안전미준수로 인한 연안사고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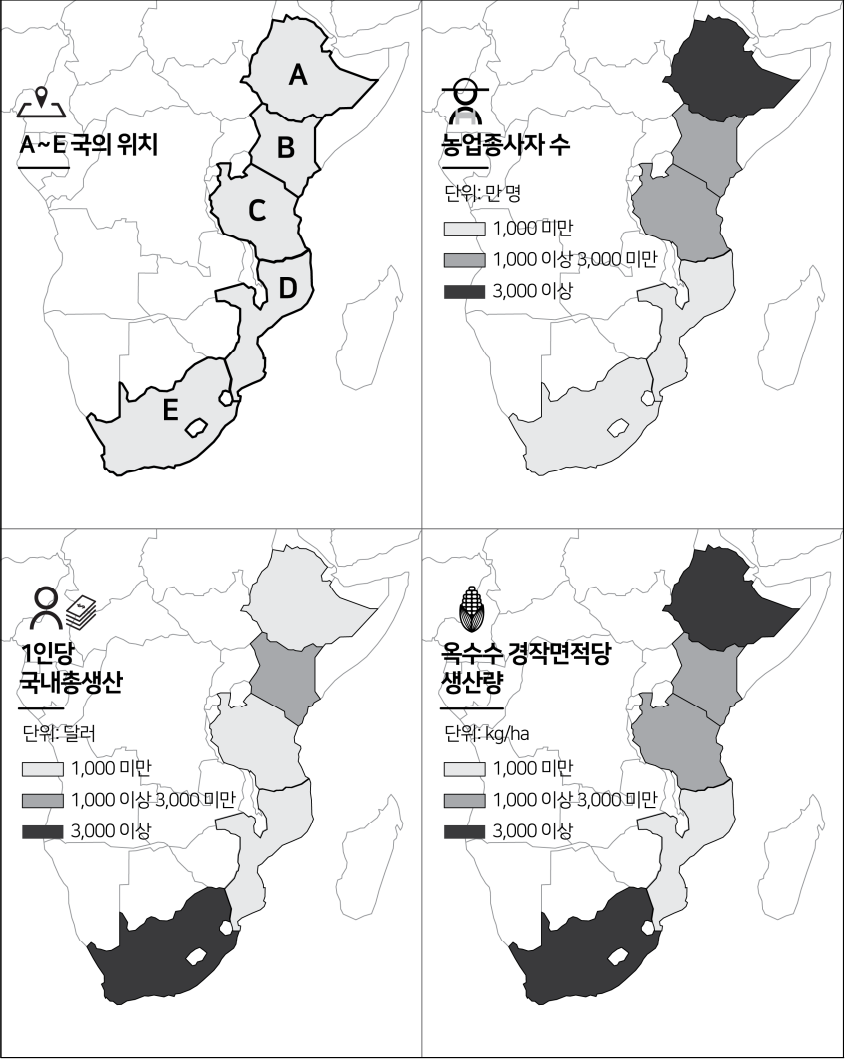
27. 다음 <표>와 <그림>은 ‘갯’국제기구가 A ~ E 국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A ~ E 중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고르면?

<표>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산정 기준 및 가중치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가중치
	1점	2점	3점	
농업종사자 수	1,000만 명 미만	1,000만 명 이상 3,000만 명 미만	3,000만 명 이상	2
1인당 국내총생산	3,0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상 3,000달러 미만	1,000달러 미만	1
옥수수 경작면적당 생산량	3,000 kg/ha 이상	1,000 kg/ha 이상 3,000 kg/ha 미만	1,000 kg/ha 미만	3

※ 합산 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임.

<그림> A ~ E 국의 위치 및 평가항목별 현황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8 ~ 29] 다음 <표>는 2019 ~ 2023년 ‘갑’국의 과일 생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연도별 과일 생산액 (단위: 십억 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과일	전체	2,529	2,843	4,100	4,159	4,453
	6대 과일	2,401	2,697	3,810	3,777	3,858
	사과	497	467	802	1,448	1,100
	감귤	634	811	931	637	990
	복숭아	185	200	410	456	601
	포도	514	496	793	586	693
	배	387	339	550	426	276
	단감	184	384	324	224	198
	기타	128	146	290	382	595

<표 2> 연도별 6대 과일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6대 과일	구분					
	재배면적	29.1	26.9	31.0	31.6	31.6
사과	생산량	489	368	460	583	422
	재배면적	26.8	21.5	21.1	21.3	21.1
감귤	생산량	563	638	615	640	668
	재배면적	13.9	15.0	13.9	16.7	20.5
복숭아	생산량	170	224	135	154	173
	재배면적	29.2	22.1	17.6	15.4	13.2
포도	생산량	476	381	257	224	136
	재배면적	26.2	21.7	16.2	12.7	9.1
배	생산량	324	443	308	261	133
	재배면적	23.8	17.2	15.2	11.8	8.4
단감	생산량	227	236	154	158	88
	재배면적	149.0	124.4	115.0	109.5	103.9
합계	생산량	2,249	2,290	1,929	2,020	1,620

28.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2022년 재배면적당 생산액은 복숭아가 감귤보다 많다.

ㄴ. 6대 과일 중 2021년 생산량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과일은 복숭아이다.

ㄷ. 6대 과일 생산액의 합에서 배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 이상인 연도는 4개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9. 위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기>의 자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연도별 사과 재배면적당 생산량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생산량 (톤/ha)	16.8	13.7	14.8	18.4	13.4

ㄴ. 연도별 감귤, 복숭아, 배 생산량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감귤 (천 톤)	563	638	615	640	668
복숭아 (천 톤)	170	224	135	154	173
배 (천 톤)	476	381	257	224	136

ㄷ. 2022년 전체 과일 생산액 중 과일별 생산액 비중

과일	사과	감귤	포도	복숭아	배	기타	단감
비중 (%)	34.8	15.3	14.1	10.2	11.0	9.2	5.4

ㄹ. 연도별 포도와 단감의 재배면적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포도 (천 ha)	29.2	22.1	17.6	15.4	13.2
단감 (천 ha)	23.8	17.2	15.2	11.8	8.4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0. 다음 <표>는 2022년 ‘갑’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시청점유율 순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드라마 시청점유율 순위
(단위: %, 분)

순위	드라마	장르	시청 점유율	1인당 시청시간	제작사
1	장수왕	사극	39.15	151	정림
2	하늘정원의 비밀	추리	11.10	54	신사제작
3	화성의 빛	SF	9.90	52	신사제작
4	기습	사극	4.20	78	폭풍
5	아이스	로맨스	3.60	89	퍼시픽
6	아프로디테	로맨스	2.90	45	신사제작
7	구름의 언덕	로맨스	2.50	34	퍼시픽
8	나만의 오렌지	로맨스	2.40	30	퍼시픽
9	함께 달리자	로맨스	2.30	26	폭풍
10	메피스토토	액션	1.90	37	폭풍
⋮	⋮	⋮	⋮	⋮	⋮

※ 1) 시청점유율(%) = $\frac{\text{전체 시청자의 해당 드라마 시청시간 총합}}{\text{전체 시청자의 드라마 시청시간 총합}} \times 100$

2) 1인당 시청시간(분) = $\frac{\text{전체 시청자의 해당 드라마 시청시간 총합}}{\text{해당 드라마 시청자 수}}$

————— <보 기> —————

ㄱ. 장르가 ‘액션’인 드라마 시청점유율의 평균은 2% 이하이다.
ㄴ. 제작사가 ‘퍼시픽’인 드라마의 시청점유율 총합은 제작사가 ‘폭풍’인 드라마의 시청점유율 총합보다 높다.
ㄷ. 드라마 수는 21개 이상이다.
ㄹ. 5위 드라마의 시청자 수는 8위 드라마의 시청자 수보다 적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31. 다음 <표>는 2016 ~ 2021년 ‘갑’국의 연금 가입 및 연금 계좌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국의 연금 가입 및 연금 계좌 보유 현황
(단위: 천 명, 천 개, %)

연도	인구	연금 가입자 수	연금 계좌 수	가입률	중복 가입률
2016	31,523	21,754	30,265	69.0	27.0
2017	31,354	()	()	69.8	28.0
2018	31,183	22,296	31,432	71.5	()
2019	30,915	()	31,538	()	30.0
2020	30,590	23,793	33,459	77.8	()
2021	30,128	23,727	33,458	78.8	()

- ※ 1) ‘갑’국 연금 가입자는 연금 계좌를 1개 또는 2개 보유함.
2) 연금 계좌 수: 해당연도 ‘갑’국 전체 연금 가입자가 보유한 연금 계좌 수의 합
3) 가입률(%) = $\frac{\text{연금 가입자 수}}{\text{인구}} \times 100$
4) 중복 가입률(%) = $\frac{\text{연금 계좌를 2개 보유한 연금 가입자 수}}{\text{인구}} \times 100$

————— <보 기> —————

ㄱ. 2017년 연금 계좌 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ㄴ. 2018년과 2019년의 중복 가입률 차이는 1%p 이상이다.
ㄷ. 2020년 연금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였다.
ㄹ. 2021년 중복 가입률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2. 다음 <표>는 2022년 3 ~ 6월 ‘갑’국 연안에서의 3개 어종 어업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어종별 어획량 (단위: kg)

월\어종	우럭	광어	고등어
3	10,203	5,410	21,910
4	15,029	5,700	23,480
5	14,330	7,198	22,333
6	17,800	6,750	24,051

<표 2> 우럭과 광어의 도·소매단가 (단위: 원/kg)

월\어종	우럭		광어	
	도매	소매	도매	소매
3	17,700	28,500	13,500	32,500
4	16,000	26,000	12,000	28,500
5	14,500	25,250	11,250	26,250
6	12,250	22,100	10,500	24,000

<표 3> 조업선박 수 (단위: 척)

월	3	4	5	6
조업선박 수	45	50	6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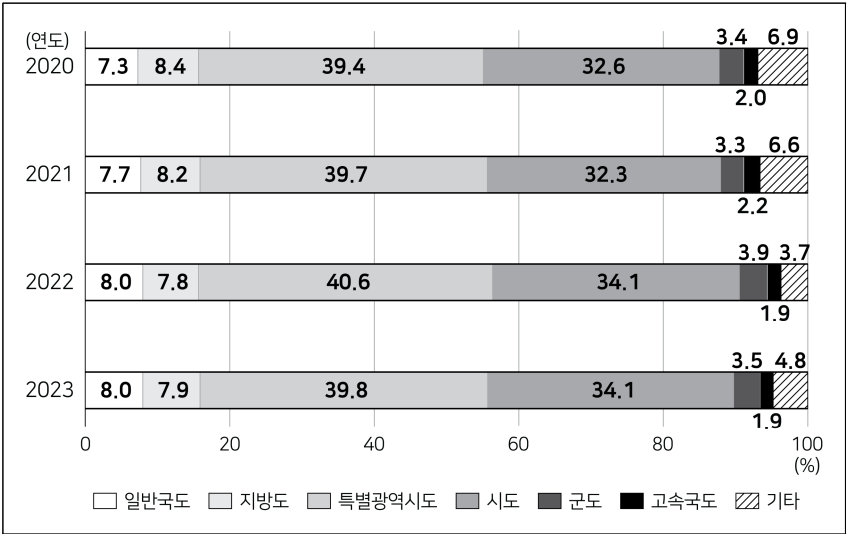
- ① 우럭 소매단가의 전월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달과 광어 소매단가의 전월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달은 같다.
- ② 3개 어종 어획량의 합은 매월 증가하였다.
- ③ 조업선박 1척당 3개 어종 어획량의 합은 3월과 비교해 6월에 20 % 이상 감소하였다.
- ④ 우럭의 도매단가 대비 소매단가 비율은 매월 증가하였다.
- ⑤ 고등어 어획량은 우럭과 광어의 어획량 합보다 매월 많다.

33. 다음 <표>와 <그림>은 2020 ~ 2023년 ‘갑’국 교통사고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 (단위: 천 건, 백 명)

구분\연도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232.0	220.8	217.1	215.9
인명피해	사망자수	46.2	42.9	39.9	37.8
	부상자수	3,504.0	3,317.2	3,228.3	3,230.3
	중상자수	925.2	824.7	782.1	742.5
	경상자수	2,578.8	2,492.5	2,446.2	2,487.8

<그림>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



<보고서>

2020 ~ 2023년 ‘갑’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였다.

㉠ 2020 ~ 2023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당 사망자수 역시 매년 감소하여 2023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100건당 사망자수는 1.8명 이하였다. 또한, ㉡ 2020 ~ 2023년 부상자수 중 중상자수의 비율도 매년 감소하여 2023년에는 부상자수 중 중상자수의 비율이 25 % 이하였다. 2020 ~ 2023년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가장 많았다. 하지만 ㉢ 2020 ~ 2023년 특별광역시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였다. 한편, 2022년과 2023년 일반국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특별광역시도와 시도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 일반국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6,000건을 넘지 않았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34. 다음 <표>는 2015 ~ 2022년 ‘갑’국의 논벼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5 ~ 2022년 ‘갑’국의 논벼 소득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도	총수입	전년 대비 증가율	경영비	전년 대비 증가율	소득	소득률
2015	993,903	-6.1	()	-2.2	560,966	56.4
2016	856,165	()	()	-1.5	429,546	50.2
2017	974,553	13.8	433,103	1.5	541,450	55.6
2018	1,178,214	20.9	()	10.2	()	59.5
2019	1,152,580	-2.2	()	1.7	667,350	57.9
2020	1,216,248	5.5	484,522	()	()	60.2
2021	1,294,242	6.4	508,375	4.9	785,867	60.7
2022	1,171,736	()	566,121	11.4	605,615	51.7

※ 1) 소득 = 총수입 - 경영비

2) 소득률(%) = $\frac{\text{소득}}{\text{총수입}} \times 100$

- ① 2018년 소득은 전년 대비 25 % 이상 증가하였다.
- ②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은 매년 증가하였다.
- ③ 2017년 대비 2021년 경영비 증가율은 20 % 이상이다.
- ④ 2020년 총수입과 경영비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은 동일하다.
- ⑤ 총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와 소득의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해는 같다.

35. 다음 <표>는 2021년 국군의 장서 보유량별 병영도서관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1년 장서 보유량별 병영도서관 수
(단위: 개소)

보유량 구분	500권 이하	501 ~ 1,000권	1,001 ~ 2,000권	2,001 ~ 3,000권	3,001 ~ 5,000권	5,001권 이상	합
육군	60	158	()	354	257	104	1,328
해군	67	49	52	39	34	21	262
공군	0	2	22	18	33	36	111
국직	1	5	17	19	13	9	64
전체	128	214	486	()	337	170	1,765

- ① 1,001 ~ 2,000권의 장서를 보유한 병영도서관 수는 2,001 ~ 3,000권의 장서를 보유한 병영도서관 수보다 많다.
- ② 육군 이외 모든 국군 병영도서관 수의 합은 2,001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육군 병영도서관 수의 70 % 이하이다.
- ③ 해군 병영도서관 중 장서 보유량 상위 50개소의 장서 보유량 합이 20만 권이라면, 해군 병영도서관당 장서 보유량은 2,000권 이상이다.
- ④ 공군 병영도서관의 장서 보유량 합은 30만 권 이상이다.
- ⑤ 국직 병영도서관의 장서 보유량 합이 21만 권이라면, 5,3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국직 병영도서관은 1개소 이상이다.

36. 다음 <표>는 2020 ~ 2023년 ‘갑’국 직업학교 A ~ E의 모집정원 및 지원자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갑’국 직업학교 A ~ E의 모집정원
(단위: 명)

직업학교 \ 성별	전체	남성	여성
A	330	290	40
B	170	144	26
C	235	199	36
D	90	9	81
E	550	49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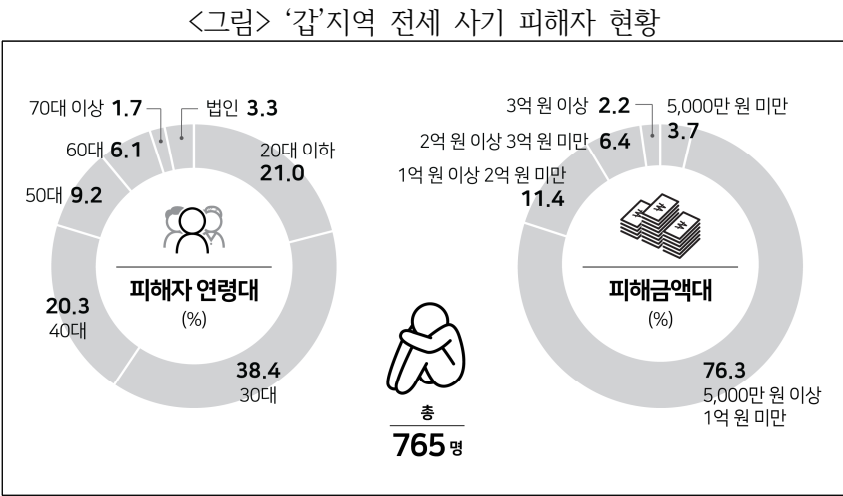
※ 2020 ~ 2023년 동안 ‘갑’국 직업학교 A ~ E의 성별 모집정원은 변동 없음.

<표 2> 2020 ~ 2023년 ‘갑’국 직업학교 A ~ E의 지원자 수
(단위: 명)

직업 학교	성별	2020			2021			2022			2023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A		11,273	8,149	3,124	14,656	10,208	4,448	8,648	6,032	2,616	8,073	5,713	2,360
B		6,797	4,824	1,973	3,401	2,434	967	3,856	2,650	1,206	3,686	2,506	1,180
C		9,957	6,627	3,330	12,406	8,079	4,327	5,718	4,040	1,678	5,215	3,483	1,732
D		4,293	559	3,734	3,994	600	3,394	2,491	336	2,155	2,389	275	2,114
E		2,965	2,107	858	3,393	2,205	1,188	2,657	1,715	942	2,528	1,568	960

- ① 직업학교 A ~ E의 전체 지원자 수의 합이 가장 많은 연도는 2020년이다.
- ② 2020년 전체 지원자 수 대비 2023년 전체 지원자 수 비율이 가장 낮은 직업학교는 D이다.
- ③ 직업학교 E에서 성별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수 비율이 가장 낮은 연도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다.
- ④ 직업학교 A는 남성 지원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연도에 여성 지원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도 가장 크다.
- ⑤ 직업학교 B에서 여성 모집정원 대비 여성 지원자 수 비율이 가장 낮은 연도와 직업학교 C에서 여성 모집정원 대비 여성 지원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동일하다.

37. 다음 <그림>은 ‘갑’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765명의 피해자 연령대별, 피해금액대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각 피해 법인 1개는 피해자 1명으로 산정하고, 법인의 연령은 고려하지 않음.

- <보 기>
- ㄱ. 피해금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피해자 중 30대 이하인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 미만이다.
 - ㄴ. 피해금액 총액은 500억 원 이상이다.
 - ㄷ. 피해금액이 3억 원 이상인 피해자가 모두 법인이고 40대 이하인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모두 1억 원 미만이라면,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인 법인은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38. 다음 <표>는 2022년 ‘갑’대학 학생 A ~ J의 학기별 봉사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학생 A ~ J의 학기별 점수
(단위: 점)

학생 \ 학기	1학기	2학기
A	4.3	4.2
B	3.7	3.6
C	4.0	3.8
D	2.8	2.7
E	3.4	()
F	0.4	0.2
G	3.9	3.6
H	2.8	1.8
I	()	2.2
J	1.2	1.1

<표 2> 학기별 · 등급별 평균점수(학생 A ~ J)
(단위: 점)

등급 \ 학기	1학기	2학기
상	3.98	3.80
중	3.10	2.45
하	()	1.25

※ 1) 학기별로 점수가 3.5점 이상이면 ‘상’등급, 2.0점 이상 3.5점 미만이면 ‘중’등급, 2.0점 미만이면 ‘하’등급으로 학생을 구분함.

2) 평균점수(점) = $\frac{\text{해당학기 해당등급 학생 점수의 합}}{\text{해당학기 해당등급 학생 수}}$

3) 평균점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① ‘상’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1학기가 2학기보다 많다.
- ② 1학과 2학기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학생은 H이다.
- ③ 학생 E의 2학기 등급은 ‘중’이다.
- ④ ‘하’등급의 평균점수는 1학기가 2학기보다 높다.
- ⑤ 학생 A ~ J는 모두 1학기 점수가 2학기 점수보다 높다.

39. 다음 <정보>와 <표>는 ‘갑’초등학교 6학년 1 ~ 6반 학생이 받은 상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개근상을 받은 학생 수와 우등상을 받은 학생 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 보>

○ 상의 종류는 개근상, 우등상, 봉사상만 있다.

○ 학생 1명은 동일한 종류의 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개근상, 우등상, 봉사상 3개를 모두 받은 학생은 1반, 2반, 5반에서 각각 2명이고, 3반, 4반, 6반에서 각각 1명이다.

○ 우등상을 받은 학생 수가 봉사상을 받은 학생 수보다 많다.

<표 1> 1 ~ 6반 수상 현황 (단위: 명, 개)

반	1	2	3	4	5	6
상 받은 학생 수	5	4	4	5	3	1
받은 상 개수	9	8	9	8	8	3

<표 2> 상별 상위 2개 반과 상을 받은 학생 수 (단위: 명)

순위	상 구분	개근상		우등상		봉사상	
		반	학생 수	반	학생 수	반	학생 수
1		2	4	1	5	4	5
2		5	3	3	4	3	4

- ※ 1) 상을 받은 학생 수 기준으로 순위를 정함.
2) 공동 2위는 없음.
- 개근상을 받은 학생 수

우등상을 받은 학생 수

① 12 15

② 12 16

③ 12 17

④ 13 16

⑤ 13 17
40. 다음 <표>는 ‘갑’국의 유종별 소비자 판매가격 산정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표> 유종별 원가, 유류세 및 판매부과금 (단위: 원/L)

유종	원가	유류세				판매 부과금
		교통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보통 휘발유	670	529	0	교통세의 15 %	교통세의 26 %	0
고급 휘발유	760	529	0			36
선박용 경유	700	375	0			0
자동차용 경유	760	375	0	개별 소비세의 15 %	0	0
등유	820	0	63			0
- ※ 1) 유종은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선박용 경유’, ‘자동차용 경유’, ‘등유’로만 구분됨.
2) 소비자 판매가격 = 원가 + 유류세 + 판매부과금 + 부가가치세
3) 유류세 = 교통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행세
4) 부가가치세 = (원가 + 유류세 + 판매부과금) × 0.1
- <보 기>

ㄱ. 유류세는 ‘보통 휘발유’가 ‘자동차용 경유’의 1.3배 이상이다.

ㄴ.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유류세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유종은 ‘자동차용 경유’이다.

ㄷ. 원가와 판매부과금의 변동없이 유류세가 10 % 인하된다면, ‘보통 휘발유’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80원/L 이상 인하된다.

ㄹ. 원가와 판매부과금의 변동없이 유류세가 15 % 인하될 때보다 유류세와 판매부과금의 변동없이 원가가 10 % 인하될 때, ‘선박용 경유’의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 폭이 더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